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에 따른 연구성과와 과제 : 공예기술분야

곽 대 응*

목 차

I. 공예부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현황

II. 연구성과와 과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문화재로서의 보호대상이 유형문화재에 한정되었을 뿐 무형의 예능·기능은 문화재로서 보호대상이 아니었고 문화재로서의 인식도 미흡했었다. 즉 예능과 공예기술이 중요무형문화재로서 법적 보호대상이 된 것은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부터이며 그때부터 인간문화재라는 새로운 용어가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인간문화재라는 용어는 뛰어난 솜씨를 가진 기능보유자에 대한 속칭일 뿐이고 중요무형문화재란 솜씨 그 자체를 지칭할 따름이다.

따라서 기능보유자는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공예기술의 경우에는 전통공예품의 제작 기술(기능)자체가 무형문화재의 지정요건이 되는 것일 뿐이므로 지정된 그 기술을 지닌 사람이 기능보유자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능을 상실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인정을 해제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아직은 생존상태에서 인정이 해제된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무형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서 연대의 하한선을 한말(1910년)까지로 설정한 것은 조선시대 말기에까지 이어진 역사적 맥락의 강조 의도가 담긴 유형문화재 지정의 사례에 따른 것이며, 전통공예기술은 전통적 手工業기술 그 자체이다.

연대의 하한선을 너무 이른 시기로 설정하여 復古的이라는 문제점이 없지 않으나 공예기술은 한말이후 격변하는 시대를 지나며 변조되고 폐절된 것이 많아 조선조 말기까지의 원형을 찾아 놓는 일이 우선 시급한 일이며 원상을 유지해온 몇몇 공예기술조차도 현대에는 소용없어 사라져 가는 것들이 많으므로 이를 보전하는 일이 다급하기 때문이다.

* 문화재위원, 홍익대학교 교수

국가지정의 공예부문 중요무형문화재 외에 '70년대 중반기부터는 각지방의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가 지정되기 시작했으나 본고에서는 국가지정의 중요무형문화재만 거론기로 한다.

I. 공예부문 중요무형문화재 지정현황

조선시대 <대전회통>의 기록에 의하면 京工匠에 속하는 공예관련기술 종목이 132종이며, 外工匠은 27종목이다. 외공장 중 경공장과 중복된 18종을 제외하면 총 141종목이 되나 경공장이나 외공장에 들지 못하는 서민의 생활용품 제작기술까지를 포함한다면 그 종목은 부지기수일 것이다.

그러나 각종 종목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연구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현재의 지정 종목은 잔존하고는 있으나 폐절될 위기에 놓인 종목과 전통성이 확실한 종목에 대해서만 지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99년 9월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공예기술 종목수는 1964년 말의 첫 지정종목인 갓일(제4호)로부터 총 41종목이며 그동안 기능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이 총 93명(사망 40명)에 불과하다. 지정이 되었다가 보유자가 작고한 후 후계자가 없어서 지정이 해제된 종목이 2종목(제37호 화장, 제94호 벼루장)이 있으므로 현재 39종목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종목분류의 합리성을 위해 통합(1995년)한 종목이 2종목(제54호 꿇음질, 제63호 북메우기)이 있고 명칭을 변경한 종목이 1종목(제10호 螺鈿漆器匠을 螺鈿匠으로 변경)이다.

이를 주된 재료부문별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금 속 공 예 : 彫刻匠(제35호), 粧刀匠(제60호), 豆錫匠(제64호), 白銅煙竹匠(제65호), 鑪器匠(제77호), 入絲匠(제78호), 金屬活字匠(제101호), 輪圖匠(제110호)
- 도 자 공 예 : 製瓦匠(제91호), 甕器匠(제96호), 沙器匠(제105호)
- 목죽칠공예 : 樂器匠(제42호), 小木匠(제55호), 大木匠(제74호), 小盤匠(제99호), 螺鈿匠(제10호/제54호 꿇음질장을 통합), 갓일 중 涼太匠(제4호), 烙竹匠(제31호), 彩箱匠(제53호), 弓矢匠(제47호), 바디장(제88호), 箭筒匠(제93호), 刻字匠(제106호), 木彫刻匠(제108호), 華角匠(제109호)
- 피 모 공 예 : 갓일(제4호), 악기장 중 북메우기(제63호를 제42호에 통합), 網巾匠(제66호), 宕巾匠(제67호), 靴匠(제73호/종목해제)
- 옥 석 공 예 : 벼루장(제94호/종목해제), 玉匠(제100호)

- 지 물 공 예 : 裱貼匠(제102호)
- 직 물 공 예 : 한산모시짜기(제14호), 나주의 셋골나이(제28호/무명짜기), 곡성의 돌실나이(제32호/삼베짜기), 명주짜기(제87호), 每緝匠(제22호), 刺繡匠(제80호), 針線匠(제89호), 樓緋匠(제107호)
- 채 목 공 예 : 丹青匠(제48호)
- 초 고 공 예 : 莞草匠(제103호)

연도별로 지정종목의 기능보유자로 인정된 사람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내는 生年-沒年이다.

- 1964년 갓일 : 高在九(1878-1979/총모자장)
田德基(1897-1972/입자장)
全鳳珠(1903-1977/입자장)
牟晚煥(1887-1971/양태장)
- 1966년 나전장 : 金奉龍(1902-1994/주름질)
- 1967년 한산모시짜기 : 文貞玉(1928-)
- 1968년 매듭장 : 程延壽(1902-1974)
- 1969년 나주의 셋골나이 : 金晚愛(1907-1982)
낙죽장 : 李同連(1906-1985)
- 1970년 곡성의 돌실나이 : 金點順(1918-)
조각장 : 金鼎燮(1899-1988)
화장 : 黃漢甲(1889-1982)
- 1971년 악기장 : 金廣胄(1906-1984/현악기제작)
궁시장 : 權寧錄(1916-1986/궁장)
張鎭燮(1916-1996/궁장)
金章煥(1911-1984/궁장)
李碩薰(1919-1980/시장)
- 1972년 단청장 : 金甲炳(1900-1975)
李致虎(1910-)
元德文(1913-1992)
- 1975년 채상장 : 金東連(1897-1984)
소목장 : 千相原(1926-)
나전장 : 沈富吉(1906-1996/꿇음질)

- 1976년 매듭장 : 崔銀順(1917-)
 金喜鎭(1934-)
- 1978년 장도장 : 朴龍基(1931-)
 궁시장 : 趙命濟(1915-1980/시장)
 朴商俊(1914- /시장)
- 1979년 나전장 : 宋周安(1901-1981/끊음질)
- 1980년 두석장 : 金德龍(1916-1996)
 백동연죽장 : 秋玉判(1927-1991)
 망건장 : 林德洙(1903-1985)
 탕건장 : 金功春(1919-)
 악기장 : 朴均錫(1919-1989/북제작)
 갓일 : 高丁生(1904-1992/양태장)
 吳松竹(1907-1984/총모자장)
- 1982년 대목장 : 裴喜漢(1908-1997)
 李光圭(1918-1985)
- 1983년 유기장 : 金根洙(1916- /주물)
 李鳳周(1926- /방자)
 尹在德(1914-1994/반방자)
 임사장 : 李鶴應(1900-1988)
- 1984년 자수장 : 韓尙洙(1935-)
 소목장 : 宋樞萬(1903-1991)
- 1985년 갓일 : 金仁(1920- /총모자장)
- 1987년 망건장 : 李受女(1923-)
 채상장 : 徐漢圭(1930-)
 낙죽장 : 鞠良文(1914-1998)
- 1988년 명주짜기 : 曹玉伊(1920-)
 바디장 : 具鎭甲(1917-)
 침선장 : 鄭貞婉(1913-)
 제와장 : 韓亨俊(1929-)
 소목장 : 姜大奎(1936-1998)
- 1989년 전통장 : 金東鶴(1931-)
 벼루장 : 李昌浩(1926-1990)

- 조각장 : 金喆周(1933-)
- 1990년 옹기장 : 李鐘珪(1915-1993/타래기법)
李玉童(1913-1994/체바퀴타래기법)
李來元(1919- /체바퀴타래기법)
 - 나주의 샛골나이 : 魯珍男(1936-)
 - 나전장 : 宋芳雄(1940- /꿇음질)
 - 1991년 대목장 : 申鷹秀(1942-)
 - 악기장 : 尹德珍(1926- /북제작)
李永水(1929- /현악기제작)
 - 소목장 : 鄭敦散(1939-1992)
 - 갓일 : 鄭春模(1940- /입자장)
 - 1992년 소반장 : 李仁世(1928-)
 - 나전장 : 金泰熙(1916-1994/칠장)
 - 단청장 : 金聖洙(1905-1998)
林石鼎(1924-)
 - 1993년 백동연죽장 : 黃永保(1932-)
 - 장도장 : 韓炳文(1939- /낙죽장도)
 - 1996년 옥장 : 張周元(1937-)
 - 금속활자장 : 吳國鎭(1944-)
 - 배첩장 : 金杓永(1925-)
 - 완초장 : 李相宰(1943-)
 - 사기장 : 金正玉(1942- /민속사기)
 - 각자장 : 吳玉鎭(1935-)
 - 누비장 : 金海子(1953-)
 - 자수장 : 崔維鉉(1936-)
 - 목조각장 : 朴贊守(1949-)
 - 화각장 : 李在萬(1953-)
 - 윤도장 : 金鍾垞(1934-)
 - 입사장 : 洪正實(1947-)
 - 궁시장 : 劉永基(1936- /시장)
金博榮(1933- /궁장)
 - 나전장 : 李亨萬(1946- /주름질)

- 1997년 유기장 : 韓相春(1948- /반방자)
대목장 : 高澤永(1914-)
악기장 : 高興坤(1951- /현악기제작)
단청장 : 洪點錫(1939-)
- 1999년 갓길 : 朴昌榮(1943- /입자장)
張順子(1940- /양태장)

II. 연구성과와 과제

1964년이래 11종목(19명)의 공예기술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인 1973년에 최초로 「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시회」가 개최되었다. 3년을 거르다가 다시 열린 제2회 전시회(1977년)때부터는 매년 개최하면서 기능보유자 작품과 공모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공모작품에 대한 시상제도를 도입하여 새로운 공예기술 종목의 발굴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신인들이 전통공예가로 등단하는 등용문의 구실을 하는 전시회가 되었다.

「인간문화재 공예전」('79년 제4회), 「전승공예전」('80년 제5회), 「전승공예대전」('86년 제11회)으로 전시회 명칭이 바뀌면서 공모전은 점차 열기를 더해 왔으나 과거의 공예유물을 답습 복제하는 경향을 탈피하지 못하여 1995년 제20회 전시회에서는 創意作品의 출품을 유도할 목적으로 「전통문화상품공모전」이라는 전시명칭을 덧붙였으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와 이듬해부터 그 명칭은 삭제되고 말았다.

매년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작품전」과 함께 열리던 「전승공예대전」은 근년에 전시회기를 달리하여 분리전시가 이루어졌는데 간혹 기능보유자들의 작품이 공모전 작품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도 나타나 기능보유자들의 연구성과에 회의를 갖게 되기도 했고, 기능보유자들에게 도제식 교육으로 맡겨진 전수교육의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분야도 있다.

극히 소수이기는 하나 대학과 대학원에서 미술교육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전승공예기술의 전수교육을 다년간 이수하고 전통공예에 정진하는 공예인들이 있어 고무적이며, 디자인능력과 미적 안목의 세련을 위한 교육이 배제된채 기능보유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온 도제식 교육의 문제점이 이런 공예인들을 통해 해소될 수 있는 모범적 사례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 대표적인 사람은 입사장 보유자 홍정실, 조각장 보조자 남경숙, 장도장 조교 박종균 등이며, 완초공예를 현대적 감각의 공예로 작품화시키고 있는 이덕희, 광계정, 남상교 등이다.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대학공예디자인 전공자들의 전승공예 입문이 각 부문에서

활성화될 때 큰 연구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공예전공자들은 본인들의 창작공예작품에 활용할 기법의 확대 목적으로만 단기전수교육을 마치는 경우가 허다하여 그들을 가르친 기능보유자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다.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 공예기술의 연구성과가 가장 잘 나타난 부문은 아마도 매듭장 부문일 것이다.

197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22호(매듭장)기능보유자로 인정된 김희진이 입문 10년 후인 1973년부터 집단 전수교육에 착수했고 이수자들을 규합하여 1979년에 한국매듭연구회 창립 및 공동연구실을 개설한 후 1981년부터 매년 회원 작품전을 개최하여 올해 창립20주년 기념회원전, 제3회 해외전시회를 가졌다. 20년간의 연구과정에서 전통매듭기술로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실용적 품목(목걸이, 귀고리, 팔찌, 브로치 등)으로의 확대를 가져와 현대생활 속에 밀착되는 분야로 연구 발전시키고 있다. 이 매듭연구회는 10여년전 부터 대학의 여름·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해 대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단기 매듭강좌를 19회째 개최해와 한국전통매듭의 생활화에도 앞장서 오고 있다.

전통공예기술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부문은 나전칠기부문이다. 1960년대에 우리나라 나전칠기가 옷칠 대신 캐슈칠로 대체 성행되면서 자개무늬까지 급격히 변질 퇴락하고 있을 때인 '66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기능보유자로 인정된 주름질장 김봉룡이 장수하며 왕성한 활동을 벌여 국내외에서 전시회를 갖고 후진 양성도 했거니와 '75년에는 곧은상사 꿰음질장 심부길, '79년에는 송곳상사 꿰음질장 송주안 등 전통적 기예를 유지하고 있던 원로장인이 기능보유자로 인정되면서 옷칠을 제대로 한 나전칠기의 맥락이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심부길·송주안 및 칠장으로 뒤늦게 인정된 김태희는 모두 70고령을 넘겨서야 기능보유자로 인정이 되어 그 이후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말았다.

나전칠기 기술전수교육이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공예종목 가운데서 가장 다행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는 까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황 때문이다.

이미 한국전쟁중인 1951년에 전통적 나전칠기의 명산지인 경상남도 통영에 「도립 나전칠기 기술원 양성소」(8월 개소. 2년제. 정원 40명)가 개소되어 체계적인 집단전수교육이 이루어졌으며 1959년에는 연구부가 병설된 3년제로 개편되면서 수준있는 인력을 배출하였다. 이 양성소의 입소 자격은 중학교졸업 이상자로서 무상교육이었다.

전쟁중에 함경북도에서 월남해 통영에 정착한 유강렬(일본미술학교 공예도안과출신 염색공예가)이 서울에서 활동하다가 고향인 통영에 피란와 있는 나전칠기의 명인 김봉룡을 앞세워 경남도지사를 설득하여 발족시킨 이 양성소는 도지사가 원장에, 김봉룡이 기술강사에, 유강렬이 주임강사에 취임해 미술·디자인교육을 병행한 나전칠기 기술교육을 실행했는데,

유강렬은 부산에 피란해 있던 지우인 화가 이중섭을 한때 소묘담당 객원강사로 초빙하기도 했으며, 유강렬이 양성소를 떠난 1954년 이후에는 김봉룡에 이어 심부길 등에 의한 수준 높은 기술교육과 화가 김형근의 미술교육이 계속되기도 했다. 1962년에 충무(통영)시로 이관되면서 「충무시 공예학원」(원장:시장)으로 개편되어 1973년까지 존속한 이 학원은 「충무시 종합공예연구소」로 다시 개편되어 수년간 지속되다 폐쇄되었다. 이곳을 거처나간 나전칠기 기능인은 총 960명에 달하며 그중 상당수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고 간혹 노동부(산업인력관리공단)심사·선정의 나전칠기 명장이 되거나 공예계 대학교수가 된 사람까지도 있다.

1960년에 미국유학에서 돌아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학과 교수가 된 유강렬은 목칠 공예전공 실기과목에 나전칠기 강좌를 7년간 포함시켰으며, 1964년부터 여름방학을 이용해 공예학과 목칠공예 전공 상급반 학생 10여명과 학과 조교로 결성된 미술·디자인교육 지원단을 충무시 공예학원에 매년 2주간씩 파견하여 수년간 협동교육을 시행하기도 했다.

이 미술·디자인교육 지원단은 아시아재단의 재정 후원을 받았는데 필자는 첫 파견때 대학 졸업생으로서 현지조사보고서 작성 책임자로 참여하여 작성된 보고서를 후원기관에 제출한바 있다.

'60년대의 대학 공예교육으로서 홍익대학교의 나전칠기 교육이후 30여년의 공백기를 지난 '90년대 중반기에 드디어 대전의 배재대학교 예체능대학 미술학부에 칠공예 전공과정(입학정원 20명)과 산업대학원에 칠기디자인 전공과정이 생겼고 부설 「칠 연구소」가 설치되어 '96년부터 윗칠관련 기능인들을 초청하여 워크숍을 매학기마다 개최해 오고 있으며 기능인 2명은 현재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이 칠연구소는 학술적 연구에도 착수하였으므로 앞으로 그 성과를 기대할만하다.

원삼국시대부터 칠공예가 발달하여 고신라시대 이후 대단한 칠기문화 국가였던 우리가 칠공예에 대한 학술연구도 극히 부진하고 전문박물관이 하나 없을 뿐 아니라 나전칠기공예가 극도로 발달했던 고려시대의 나전칠기 유물도 국내에 변변히 없는 처지에서 완전한 복제품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전통 복식과 자수분야의 연구성과와 비교해 보면 천양지간의 차이를 느끼게 된다.

세계적 명성을 얻은 고려나전칠기유물이 일본·영국·미국·네덜란드 등의 중요 박물관에는 소장되어 있으나 국내에는 전시 가능한 전제품으로 40여 센티미터의 가느다란 원봉인 〈나전구갑복채국당초문봉〉 한점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을 뿐이며 조선시대 전기의 나전칠기 유물조차도 국내에는 없다.

한국 동란시기에 가루가 되었다는 여러점의 고려칠기(피태칠기, 나전칠기) 출토유물은 아예 복원의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조선고적도

보」에 실린 흑백사진으로나 구경할 수밖에 없다. 즉 학술적 연구를 위한 오래된 유물이 국내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이 분야 연구의 지장요소이며, 고려나전칠기를 가장 많이 소장한 일본에서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고려칠기 연구성과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전통복식분야의 연구성과는 괄목할만하다. 한국복식학회와 복식문화학회가 있어 철저한 학술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모시짜기(제14호), 무명짜기(제28호), 삼베짜기(제32호), 명주짜기(제8호), 침선장(제89호), 누비장(제107호), 매듭장(제22호), 자수장(제80호), 화장(제37호/'82년 지정해제), 갓일(제4호), 망건장(제66호), 탕건장(제67호)등 12개종목이 모두 전통복식 관련 종목일 뿐만 아니라 아직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전통염색은 '90년 전승공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정도로 복원되었고, 전통방식의 금박일은 아직도 일부 세간에서 계속 작업되고 있으며 각종 전통복식 및 섬유 관련 유물만을 소장한 전문박물관인 「석주선기념박물관」(단국대학교), 「자수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연구성과를 크게 올릴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바탕을 지닌 것이다.

'98년에 전통복식 및 전통염색연구를 위한 실기과정으로 개설된 석주선기념박물관 특설 전통문화강좌(1년과정)에는 고학력의 복식전공 또는 한복기능인들이 몰려들고 있으며 제1기생 26명이 올해 7월에 졸업작품전을 여는 열기를 보였다. 이 작품들은 모두 옛복식 유물을 전통침선·염색기법으로 완전히 복제한 작품들이었다.

전통복식과 관련된 분야인 자수는 이미 오래 전부터 기능인들이 잔존해 있었기도 하거니와 지금은 없어지고 말았으나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에 자수학과(1947년 설치, 1981년 섬유미술과로 개편)까지 있었으므로 집단적인 기술교육이 오랫동안 이루어졌고 「수림원」이라는 민간기관이 있어 기능전수의 성과를 얻고 있다.

1996년에 민속사기제작의 '사기장'이 제105호로 지정되었고 관련종목으로 '88년에 제91호 '제와장', '90년에 제96호 '옹기장'이 지정되었을 뿐 자생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도자기 부문의 청자·백자제작의 공예기술이 온존할 수 있었던 배경은 1950년대 중반기에 있었던 문화계 지식층의 도예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부설의 「한국조형문화연구소」가 미국 록펠러재단의 후원으로 1955년 10월에 발족되어 이듬해 봄에 성북동에 재래식 가마를 짓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경험많은 도공을 모아 수년간 전통자기 복원에 노력했으며(담당연구원 : 화가 정규), 같은해 대방동에 가마를 짓고 발족한 「한국미술품연구소」(대표 : 조각가 윤희중)는 수출을 목표로 한 전통도자기 생산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1965년 한일국교 정상화이후 밀려들어오는 일본관광객들의 가장 선호도 높은 구입품이 전통도자기였기에 '70년대까지 고려·조선시대 도자기의 복제품을 생산하는 경기도 광주·이천 등의 전통도예공방들은 호황을 누리면서 도

자 기술향상과 기술전수에 자생력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50년대 말부터 홍익대학교 공예과와 이화여자대학교 미술과에 도예전공이 개설되면서 대학의 현대적 도예교육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전세되거나 출토된 도자기 유물이 풍부한 관계로 학계의 전통공예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일찍부터 도자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대학의 도예교육에서는 전통도예에 대한 교육이 미진했을 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의 전통도예연구도 청자·백자에 편중되어 이루어졌다.

1970년대 이후 도시의 주거가 아파트·연립주택 등으로 급속히 집단 주거화 되면서 장독, 김치독 등 용기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전통적 용기공장들은 문을 닫기 시작하고 용기장들은 일손을 놓게 되어 급기야 '80년대부터는 전통제작기법을 지닌 용기장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자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 기능보유자로 용기장 3인을 지정('90년 5월)하여 그 기술을 보호하기에 이르렀다.

전통도자부문의 기술에서 용기보다도 더 일찍 위기를 맞은 것은 전통기와의 제작기술 종목이다.

고건축의 보수, 사찰의 신축에 의해 겨우 명맥을 유지하던 전통製瓦 기술은 기계화에 밀려 전통적 수공업에 의한 제와장인을 찾아보기 어렵게 된 1988년에 이르러서야 중요무형문화재 제91호로 종목이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여러종목의 전통공예기술에 대한 집단 교육으로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1995년부터 1년 과정의 「한국전통공예건축학교」를 개설하고 주 1회씩 실기교육을 실시(각반 정원 15명, 10명 이상일 때 반을 개설)해 오고 있는데 현재 초급반 과목으로 누비·입사·채화칠기·소목·대목·목조각·자수·매듭·침선·단청·화각을, 1년 과정의 기초반 수료자를 위한 연구반 과목으로 소목·자수·침선·단청과목을 두고 있어서 젊은이들이 전통공예기술에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의 의·식·주 생활이 거의 서구화되어 있는 오늘날은 생활 속에서 소멸되어가고 있는 전통공예기술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금까지 공예분야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은 총 41종목(2종목은 유사 타종목에 통합, 2종목은 해제, '99년현재 39종목)인데 '60년대에 6종목, '70년대에 9종목, '80년대에 14종목, '90년대에 12종목이 지정되었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여러 종목이 영상기록 또는 서적간행으로 기록되어오고 있다.

종목의 발굴조사 및 지정도 중요한 일이거니와 지정종목의 기록자료 발행은 각 종목의 학술적 연구의 자료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지정종목에 대한 연구성과를 학술적 연구

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산업으로의 연계를 위한 연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그것은 공예기술이 곧 산업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분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종목에 대한 학술적 연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현대산업기술과의 연계연구는 더욱 부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통공예기술분야에 있어서는 연구성과를 논하기보다도 새로운 종목의 발굴과 지정이 더 시급한 처지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재 전통공예기술분야 신청 공고〉('98년 12월)로 밝힌 발굴대상 종목은 피모공예분야의 피혁장, 鞞장, 모필장, 馬尾체장·도자공예분야의 도기장, 옹기장·금속공예분야의 도금장, 야철장, 주철장, 칠보장, 금은장·나전칠공예분야의 칠장·제지공예분야의 한지제지장·목공예분야의 造船장·지물공예의 조화장, 지승장, 紙途器(색지공예)장·죽공예분야의 죽렴장, 죽세장, 부채장, 빗장·염색공예분야의 염색장·초고공예분야의 등메장, 藁草(벼짚)장, 벌립장·옥석공예분야의 석장, 벼루장·복식공예분야의 금박장, 족두리장·직물공예분야의 안동포짜기·기타공예분야의 전각장 등등 14분야 31종목으로 되어 있고 명시되지 않은 기타 종목도 신청('99년 3월말까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가운데 옹기장을 제외한 30종목은 무형문화재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종목들이다.(화장, 벼루장은 인정되었던 기능보유자가 후계자 지정을 해 놓지 못한채 작고하여 해제되었던 종목이다.)

신청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노릇이지만 지정종목이 많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다행한 일이다.

격변해온 국민들의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예기술의 발굴에 대한 연구가 급선무이며 그러한 연구를 공예장인들에게만 의존해서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학술적 연구의 기틀이 잡혀 있지 않다는 점은 큰 문제이다.

바람직하기는 각 공예의 특성에 따른 전문적 특수박물관이 속속 개설되어 유물들을 한 장소에서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일이며 학술적 연구를 위한 인력을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일은 정부차원에서도 힘써야 할 일이지만 전통공예기술과 관련된 산업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이는 전통공예기술에 대한 연구 결과를 가장 빨리 현대산업기술에 접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관련산업체가 지녔기 때문이다.

전통공예기술의 원형을 발굴·보전하는 연구가 중요한 만큼 이를 현대산업기술화시키는 연구도 중요한 일이며, 공예기술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는 궁극의 목적도 이러한 두가지 측면에 있다고 판단된다.